

대학생의 부모재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우 현 주(인하대 석사) · 양 성 은(인하대 부교수)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또는 사별 후 한부모가족기를 거쳐 재혼가족으로 안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자녀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부모-자녀관계의 위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재혼을 경험한 후, 적응과정을 거쳐 현재 재혼가족으로 안정화에 이른 대학생들이다. 성인 초기인 대학생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긴장관계에 놓였던 부모-자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며, 부모의 혼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된 관점을 갖기 때문에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을 탐색하는데 적절한 대상이라고 사료된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필드노트가 추가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먼저, 수집된 전체 자료를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을 파악(sense of the whole)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끝으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주제로 발전시켰다.

본 연구참여자는 총 11명(남 3명, 여 8명)의 4년제 대학교 재학생들이다. 평균 나이는 22세였으며, 부모의 재혼 당시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15세였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연구참여자가 6명이고, 사별을 경험한 연구참여자가 5명이었다. 가족구조 측면을 보면, 계부가 있는 연구참여자가 6명이고, 계모가 있는 연구참여자는 5명이었다.

본 연구의 요약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였다. 한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죽음을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재혼에 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를 사별한 경우보다 이혼을 경험한 경우, 부모의 재혼에 대하여 더 큰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별을 경험한 경우도 부재중이던 부모의 자리에 새로운 계부모가 등장하면 외현적으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재혼가족이 안정화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부모의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부모의 재혼을 통해 조기 성숙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부모의 재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러한 자기반성적 시간이 조기 성숙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재혼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혼 또는 사별 후 한부모가족기를 거쳐 재혼가족으로 안정화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자녀입장에서 재혼 가족의 경험을 고찰해 보았음에 의의가 있다.